

광주 FC, 한여름 밤의 골 축제

‘K리그1’ 대구전 양팀 10골 폭발
광주 6-4 승리 ... 7위로 순위 상승
펠리페 리그 10골...광주 외인 최다
‘K리그2’ 전남, 대전과 1-1 무승부



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골 소리가 쏟아졌다.

광주FC가 지난 30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2020 K리그 1 18라운드 대구FC와의 원정경기에서 6-4 승리를 거뒀다.

무려 10골이 터지면서 K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골 타이 기록이 작성됐다. 광주는 2012년 6월 23일 전남드래곤즈전 6-0 승리 이후 8년 만에 6득점에 성공, 7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대구는 광주의 폭격에 선제공격을 지키지 못하며, 200승 삼페인을 터트리지 못했다.

기록적인 득점소가 펼쳐진 이날 펠리페도 광주의 기록을 새로 썼다. 펠리페는 멀티골로 10득점 고지에 오르며 광주 소속 외국인 선수 1부리그 최다 득점 기록(8득점)을 갈아치웠다.

시작은 좋지 못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대구 데안에게 광주의 골대가 뚫렸다.

이후 대구가 광주 진영을 장악했지만 전반 23분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동점골이 나왔다.

엄원상이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돌파하다가 상대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펠리페가 키커로 나서 골대 왼쪽을 갈랐다. 펠리페는 이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며, 광주 외국인 선수 1부리그 최다 득점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7분 뒤에는 윌리안과 아술마토프가 대구를 흔들었다.

윌리안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나온 뒤 아술마토프가 재차 슈팅을 시도해 시즌 첫 골을 장식했다.

2-1에서 시작된 후반전, 이번에도 대구가 먼저 움직였다.

후반 4분 광주가 세징야에게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달라진 뒷심으로 대구를 공격했다.

후반 15분과 17분 윌리안과 펠리페가 연달아 골망을 흔들었다. 윌리안은 펠리페의 두 번째 골을 도우며 순식간에 1골 1도움을 올렸다.

후반 21분 대구 에드거가 추격의 골을 넣자 광주의 좁은 포 임민혁이 응수했다.

후반 31분 엄원상과 교체해 들어간 임민혁이 투입 3분 만에 오른발로 시즌 첫 골을 장식했다. 임민혁은 2분 뒤에는 김주공의 골에 관여해 시즌 1호 도움도 올렸다.

김주공의 끝까지 6골을 몰아친 광주는 후반 추가 시간에 세징야에게 골을 내줬지만 6-4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역사적인 경기의 승자가 됐다.



광주FC의 펠리페가 지난 30일 대구FC와의 원정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주먹을 쥐며 기뻐하고 있다. 펠리페는 이날 멀티골에 성공하면서 광주 외국인선수 1부리그 최다골 기록을 10골로 경신했다. <광주FC 제공>

인천전 3-1승리 이후 4경기 만에 승리를 이끈 박진섭 감독은 "대구가 강팀이라 걱정했는데, 이겨준 선수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최고 승리가 없어 강등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승리가 앞으로의 행보에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지난 맞대결 홈경기에서 두 명이 퇴장을 당해 어려움을 겪었다. 수비를 단단히 하고 빠른 공격 전형을 주문했다"며 "그리고 강등권과 큰 차이가 나

지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발 더 뛰자고 화이팅을 불어넣었다. 최근 막판 실점으로 무승부가 많아서 마지막까지 집중하자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극장골'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승점 1점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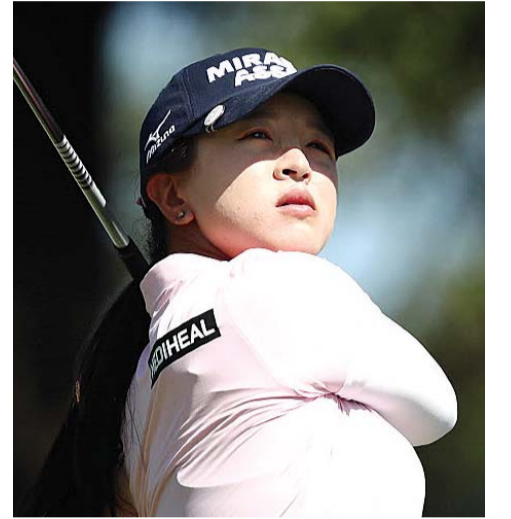
전남은 지난 30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020 K리그2 17라운드 대전과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김현욱의 페널티골로 극적인 1-1 무승부를 이뤘다.

후반 5분 이유현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빠진 전남은 후반 23분 대전 안드레에게 선제공포도 내줬다.

동점골 사냥이 실패로 끝나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전남의 역습이 진행됐다. 이때 김보용이 상대 페널티박스에서 반칙으로 넘어졌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그리고 김현욱이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대전 골대를 가르면서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

빨간바지 안입어서? 김세영, 뒤집기 실패

LPGA 아칸소 챔피언십 5위



김세영이 7개월 만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복귀전에서 기대했던 우승은 놓쳤지만 정상급 경기력을 확인했다.

김세영은 지난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5위(15언더파 198타)에 올랐다.

우승은 8언더파를 몰아쳐 3라운드 합계 20언더파 193타를 적어낸 오스틴 언스트(미국)에게 돌아갔다.

지난 1월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와 게인브리지 LPGA 옛 보카리온 등 2경기만 치르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 머물렀던 김세영은 이번 대회가 7개월 만의 LPGA투어 복귀전이었다. 앞서 두차례 대회에서 7위와 5위에 올랐던 김세영은 올해 3차례 대회 모두 톱10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선두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에 3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서 복귀전 우승 기대를 모았던 김세영은 버디 6개를 잡아냈지만, 고비 때 나온 보기 2개와 더블보기에 발목이 잡혔다.

김세영은 사흘 동안 평균 282야드의 드라이버 샷을 때렸고, 87%의 높은 그린 적중률을 기록했다.

한때 선두에 2타차로 추격한 신지은은 3언더파 68타를 쳐 김세영과 함께 공동 5위에 합류했다. 박인비는 버디 7개를 잡아내며 6언더파 65타를 쳐 공동 7위(14언더파 199타)로 올라서는 저력을 보였다. 박인비는 복귀 이후 2개 대회 연속 5위 이내에 드는 안정된 경기력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돌아오는 부상병... KIA, 9월엔 해 뜬다

브룩스·김선빈·전상현 복귀...이번주 삼성·롯데·한화 6연전



휴식을 끝낸 브룩스가 '호랑이 군단'의 순위 싸움을 이끈다.

KIA 타이거즈는 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9월 막판 순위 싸움에 돌입한다.

지난주 허리 통증으로 한 차례 등판을 걸렀던 브룩스가 다시 마운드에 선다. 브룩스는 9월 첫날 삼성 최재홍과 맞대결을 벌인다.

브룩스는 올 시즌 가장 득점한 모습으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 19경기에 나와 123이닝을 2.85의 평균자책점으로 막았다. 탈삼진은 102개를 뽑아냈고, 볼넷은 22개.

공격적이고 위력적인 피칭으로 에이스 타이틀은 차지했지만 승운은 따르지 않았다. 마지막 9회 몇 차례 경기가 뒤집히면서 7승에 멈춰있다.

20경기에 나온 양현종(평균자책점 4.92, 108이닝)이 9승으로 팀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챙겼고, 가논은 18경기에서 99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4.55, 7승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는 채운 브룩스는 승리와 이닝을 동시에 책임지게 된다.

마무리 전상현이 지난 30일 왼쪽 종아리 근육통으로 처음 자리를 비웠지만 다행히 부상이 경미해 이번 주 합류가 가능하다. 전상현의 부재 상황에서는 '고졸 루키' 정해영이 배장투구로 로하스, 강백호 등을 상대로 2점의 리드를 지키며 세이브도

■ KBO 중간순위 (8/31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92	56	2	34	0
2	키움	99	59	0	40	1.5
3	LG	97	55	2	40	3.5
4	두산	96	52	3	41	5.5
5	KT	93	49	1	43	8
6	롯데	91	47	1	43	9
7	KIA	93	48	0	45	9.5
8	삼성	95	43	1	51	15
9	SK	96	32	1	63	26.5
10	한화	94	26	1	67	31.5

수확했다.

내야 부상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선빈이 재활과정 등을 마치고 복귀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일 트레이드 이후 이적 신고식을 치르지 못한 김태진도 부상에서 벗어나 실전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주 퓨처스리그 두 경기에 나온 김태진은 30일 연습경기에서도 5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완벽한 몸상태를 확인한 뒤 콜업할 예정이지만 복귀 움직임은 순조롭다.

한편 KIA는 삼성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3-4일 사직, 5-6일 대전 원정길에 오른다.

사직 원정은 올 시즌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다. 반 경기 차 6위 롯데, 7위 KIA는 4일 더블헤더까지 이번 만남에서 총 3 경기를 치르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

헐크·아이언맨·스파이더맨...아기호랑이 폭소 만발 원정길



지난 21일 윌리엄스 감독의 제안으로 KIA판 '루키 헤이징' 행사인 '타이거즈 에너지이징 데이'가 열리면서 이색 복장을 한 선수들이 원정 출발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맷 감독 제안 ML식 신인 신고식

윌리엄스 감독의 제안으로 KIA 타이거즈에서도 '루키 헤이징' (Rookie hazing) 행사가 열렸다.

'루키 헤이징'은 일종의 메이저리그 신인 신고식으로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원정길에 오르는 행사를 말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빅리거 류현진(토론토)도 마시멜로맨으로 변장해 신고식을 치렀었다.

KIA에서도 지난 21일 타이거즈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를 담아 '타이거즈 에너지이징 데이'라는 이름의 '루키 헤이징' 행사가 진행됐다.

맷 윌리엄스 감독의 제안으로 올 시즌 1군에 데뷔

했거나 1군 출전이 늘어난 젊은 선수들이 이색 복장 차림으로 챔피언스필드를 출발해 서울 숙소까지 향했다.

지난 30일 프로 첫 세이브까지 기록하는 등 강하게 크고 있는 '아기 호랑이' 정해영이 타노스로 변신했고, 내야에서 재치 있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고졸 루키' 홍준표와 박민은 각각 헐크와 아이언맨으로 분장했다.

좋은 수비로 이목을 끄는 김규성은 스파이더맨, 30일 KT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역전 결승홈런으로 파워를 과시한 오순우는 유치원생이 됐다.

황대인은 위아래 흰색 의상을 착용해 패션 셀러

브리타로 변신했고, 이진영은 만화 드래곤볼의 손오공, 차명진은 해리포터가 됐다. 서덕원(토트) 남재현(슈퍼맨) 김현수(이소룡) 등 '타이거즈 에너지이징 데이'의 주인공으로 함께 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윤인득·유재민 트레이닝 코치, 박준성·이연준 통역, 배경수 1군 매니저까지 행사에 동참해 색다른 추억을 남겼다.

윌리엄스 감독은 "타이거즈 에너지이징 데이"가 젊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팀에는 새로운 활력이 되길 바란다. 또한 매년 이같은 행사를 통해 활기 넘치는 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